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1. 13. (목)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거대 양당에서 탈피해 현안 정책 보도 꾸준히 이어져야 (1/12)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링

[2022년 1월 12일자 KBS 뉴스 9]

대선을 약 2달여 앞둔 시점이나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기에 KBS 뉴스9, SBS 8뉴스, MBC 뉴스데스크 모두 붕괴 사고를 전면으로 다루면서 가장 많은 꼭지를 할애하였다. 이에 대선 보도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관련 꼭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는 유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다.

우선 KBS는 3사 뉴스 중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동정을 별도의 꼭지로 구성하여 함께 다루었다. 심 후보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양당 정치를 비판하였으며 최근 지지율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전면 중지했다. 안 후보 또한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여야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양강 구도는 대선을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진영 대결로 매몰시키기에 십상이다. 이런 가운데 소수정당은 정책 의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언론은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KBS는 꾸준히 심 후보와 안 후보의 행보를 다뤘으며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양당 대립 구도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지키고자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심 후보와 안 후보 모두 현 양당 정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만큼 양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양당 정치하에서 소수정당에게 단일화 압박이 받

생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지지율 셈법에 의한 전략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에서의 변화 등 보다 다각도로 접근하여 다룬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다소 아쉬운 점은 정책 관련 기획 보도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다. 같은 날 SBS 8뉴스는 젠더 이슈를 둘러싼 각 후보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정치적 셈법을 비판하는 보도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임대료 관련 공약에 대한 실제 자영업자들과 전문가들의 반응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또한 MBC는 각 후보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반면 KBS 뉴스9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당일 발표한 공약을 열거하는 보도에 그쳤다. 물론 KBS는 SBS나 MBC에 비해 편성 시간이 10~20분 정도 더 짧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부딪혔을 수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대선 보도에만 치우치면 안된다. 그러나 별도의 기획 보도 편성이 힘들다면 기존의 보도 구도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구도를 짜는 것이다. 일례로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당일 발표한 공약들 중 일부를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구도 안에서 함께 보도하며 비교하였다. 이처럼 언론이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구도를 짜주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은 나름의 정책 대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면서도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을지 다각도에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